

대행 스님



# 유 무를 같이 동시에 놔서 함이 없이 한다면 그것이 활공법!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 생각을, 내가 생각 자체를 내면은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 그래.' 하고 던져버리는데 스님 올 초 법문에 그런 게 있어서 혹시 내가 이걸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스님** 잘못한다도 없고 잘한다도 없어요. 왜냐? 그건 나무가 바람에 쓸리고 또는 눈에 맞아서 흩어지고 비가 와서 비를 맞고 이렇게 해도, 또 공기, 태양열 이런 것이 많이 흡수가 돼도 이 나무는 말이 없어요. 왜냐? 뿌리만이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순환을 하죠. 맡길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여여하게 맡겨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무는 그대로 흡수돼서 밑으로 내리고 뿌리에서 올리고 태양열, 공기 모든 거를 흡수해서 내려보내도 그 내려보내기 위해서 참, 때로는 비에 젖고 때로는 눈에 젖고 때로는 바람에 젖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에 젖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다 흡수해서 내려보냅니다. 또 밑에서는 수분이나 또는 지기나 황열, 철분 이런 모든 거를 흡수해서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 영양을 섭취해서 푸르르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닥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뿌리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겁내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놓을 게 없다느니, 아까 그랬지요? 놓을 게 없는데 놓는다, 생각을 한다, 생각할 것도 없다 이랬죠? 그런데 생각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데에서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예를 들자면 '맹물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이건 내 몸에 좋을 텐데. 기침이 나는데 뭐를 넣어야 기침이 안 날 텐데.'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 돼서 무효예요. 생각을 못하면은 목석이 돼서 무효고, 또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또 이 육체가 없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요. 그러니까 이건 삼 단계가 하나로 지금, 집합이 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그렇게 많이 붙여서 하지 말고 요다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용건 하나만 가지고 해결을 하면 다 해결이 나요. 그러니까 용건 하나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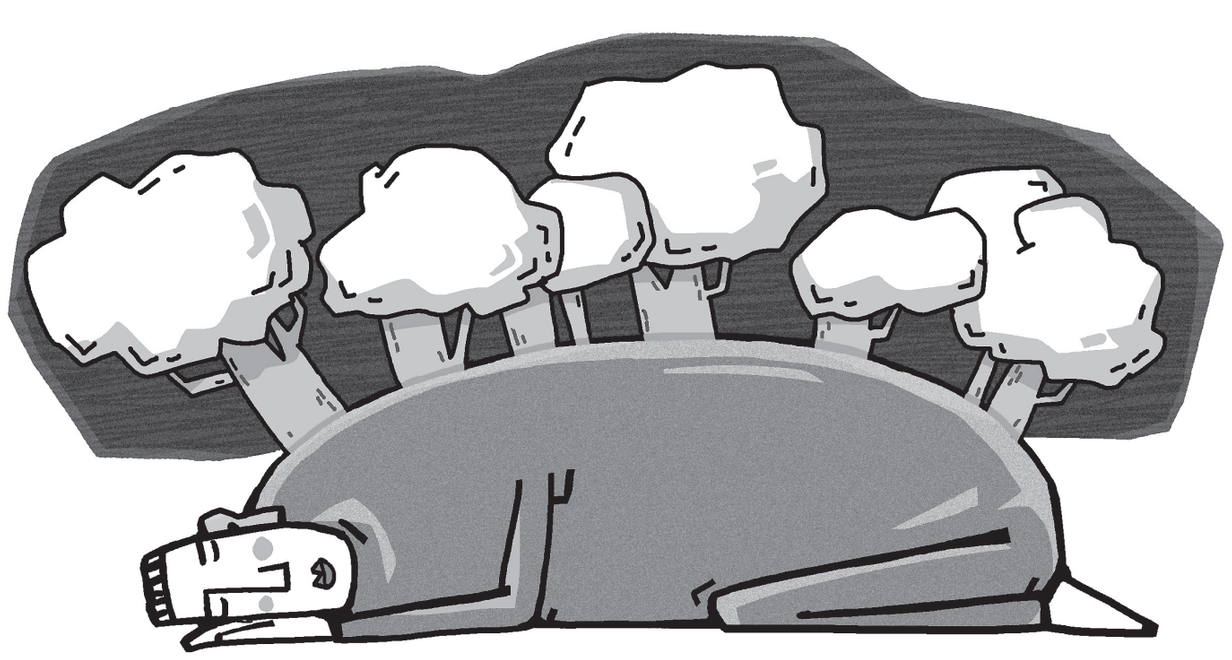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제가 표현하기가 어중간해서 좀 길게 한 겁니다. 생각을 안 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내버리면 아예 제가 야단을 맞으니까, 길잡이로부터요. 그래서 생각을 안 낸 겁니다.

**큰스님** 야단을 누가 칩니까? 야단을 치는 놈도 없고 야단을 안 치는 놈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자유예요. 아직 더 공부하세요.

**질문자1(남)** 예. 다시 관(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아는 게 많으면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으면 문이 닫히거든요.

**질문자2(남)** 큰스님, 한마음법을 항상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안다는 것과 마음을 본다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큰스님** 안다는 것도 아니고 또는 봤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똥 눌 때 똥을 눠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눕니까? 또 먹어야 하나, 안 먹어야 하나 하고 먹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활을 그대로 이렇게 스스로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보고 듣고 스스로 그냥 하고 있죠? 말과 행과 뜻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깐 "참마음을 찾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있다는 증겁니다. 아주 증거죠. 자기 참마음과 몸이 둘 아니게 그냥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참마음은 성품의 작용에 의해서만이 볼 수 있습니까?

**큰스님** 음, 참마음이라, 그거는…. 지금 뭐라 그랬죠?

**질문자2(남)** 실체가 없는 참마음이요.

**큰스님** 실체가 없어서도 아니 되고, 이 실체가 없이는 참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참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참마음과 실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동시에 동일하게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그대로 실체며 그대로 참마음에서 나오는 움죽거림이죠.

**질문자2(남)** 상대성 원리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큰스님께서 마음 길을 항상 말씀하실 때 첫째, 내가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너와 나와 더불어 죽어야 하고 세 번째는, 더불어 나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 유(有)가 유를 죽이면 무(無)가 되고, 유 · 무를 동시에 죽이면 역시 중도이자 공(空)이 되며, 유가 무를 살리고 무가 유를 살리면 그 활공법이 큰스님 전자의 말씀과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큰스님** 유 · 무를 같이 동시에 놔서 함이 없이 한다면 그것이 활공법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름해서 활공법이지 그대로 우리가 활공법이죠.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런데 아까 나를 죽여야 나를 본다 이랬죠?

**질문자2(남)** 예.

**큰스님**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을 놔서 나를 발견한다, 내가 탄생했다 하더라도 갓 난 어린애와 같아서 모든 거를 또 상대와 둘 아니게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거는 내 자생중생들하고 둘 아니게 죽어야 되거든. 내 자생중생들을 둘 아니게, 동일하게, 나와 더불어 둘 아니게 만들어야 그것이 나를 깨닫는 법이요, 내가 탄생하는 법이죠. 두 번째, '둘이 아니게 더불어 죽어야 한다' 하는 거는, 외부의 모두 나와 둘 아니게 죽어야 하는 것이, 그 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 이제 둘 아닌 도리에 죽어야 둘 아닌 도리를 안다는 거고. 셋째는, '둘 아닌 도리를 알기 때문에 둘 아니게 나툴 줄 알게끔 또 거기서 죽어야 한다' 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처음에도 죽어야 하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세 번째도 죽어야 한다. 나라는 것이 혼자, 나라는 게 세울 게 없다, 이게 죽는 거예요. 나라는 걸 세울 게 없어요. 모든 것에 고개가 숙여져요. 둘 아니게 고개가 숙여져요. 둘 아닌 도리에 의해서만이 여래(如來)라는 이름이 나왔고 부처라는 이름이 나왔지, 각각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내가 잘 배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처가 될 수가 없고 여래가 될 수가 없고 둘 아닌 도리의 나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스럽게 말입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께서 법당을 오르내리실 적에 자명등이 서 있습니다. 그 자명등에 불을 붙여 주시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영원한 자명등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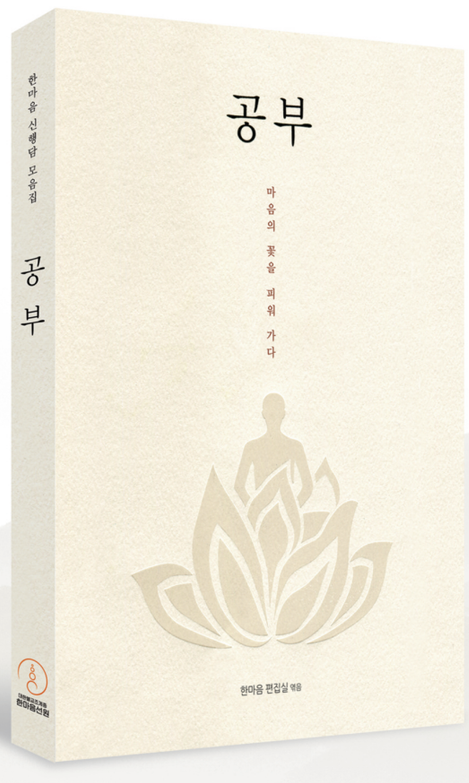
**큰스님** 이 자명등이 석등(石燈)에, 이 석등이 (대중들을 두루 가리키시며)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전부 석등이죠. 그런데 석등에 불이 원래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죽거리지요. 하하하. 본래 켜져 있으니 그 본래 켜져 있는 광명의 빛을 바로 자기가 응용해서 보고 비추고, 또 켜고 끄고 하는 것이 없이 켜고 끄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명등에 불을 켰다 안 켰다, 켜 주고 이런 게 없이 본래 켜져 있습니다. 활활 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간직하고 활활 타고 있는 건데 타고 있는 그 불을 못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것뿐이고 꼭 그 불은 여러분 앞에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충만히 주어져 있다고. 그것이 바로 광명등입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석등에 불이 켜지셨습니까?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 종무소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